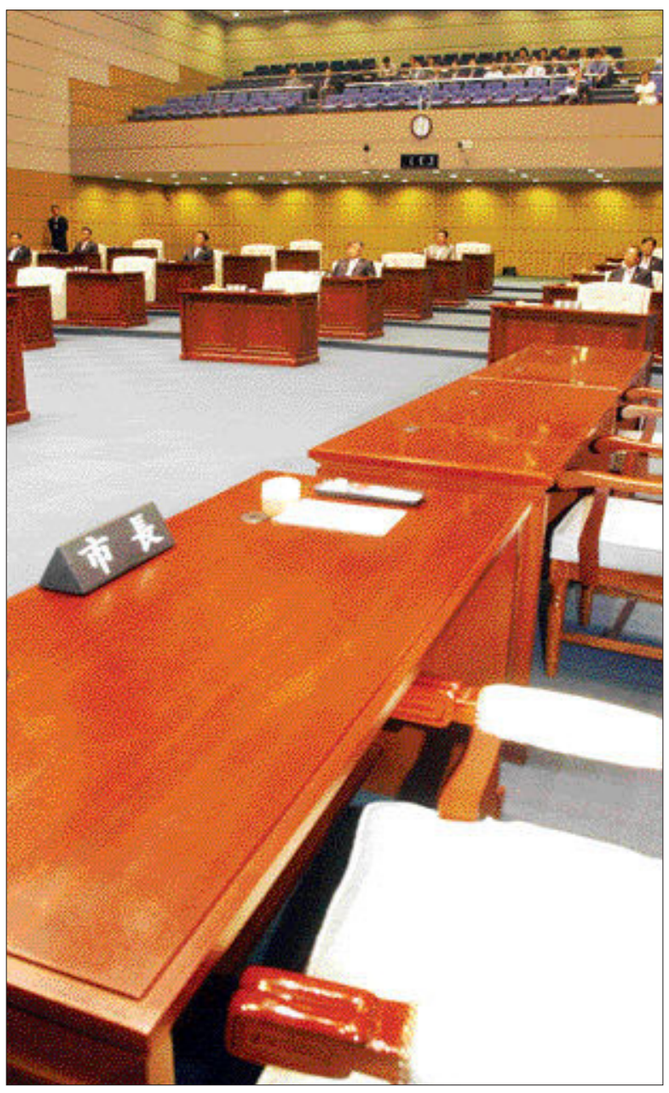
꿈이있는 사람들의 특별한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9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7월 13일 (음력 6월 18일) 목요일

밥그릇 싸움 눈먼 지방의회

광주시의회·광주 서구·남구·순천·나주·해남의회 院구성 파행

시민단체 "주민소환 등 리콜 검토"



제5대 광주시의회가 12일 오후 4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놓고 파행 운영되는 바람에 박광태 광주시장 등 귀빈 초청도 하지 못하고 의원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약식으로 진행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의회를 비롯 광주·전남 상당수 광역·기초의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개원 초기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선 의회도 있어 파열음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계파간 치열한 '밥그릇싸움'에 주민자치는 실종된 상태다. 원 구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의회는 11일 소수파 의원들이 세 불리를 의식,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일정을 지연시키자 다수파가 밤 늦게 '반쪽 본회의'를 소집해 강박원 의원을 의장으로 한 의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나종천·손재홍·김동식 의원 등 소수파는 12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의장 선출은 원인무효"라며 "의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고 시장 초청도 하지 못한 채 약식으로 개원식이 치러지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4년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의장 선거 결과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과 파행으로 3개월씩이나 의정공백이 이어졌다.

순천시의회도 개원 첫날인 11일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과 예비의장 후보에서 탈락한 민주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의회'로 전락,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순천시의회는 10~1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 결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섯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개원식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광주 남구의회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은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반발해 의장단 선거과정에 불참하는 등 향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3일 무소속 의원 5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가해 의장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으며, 해남군의회도 4일 임시회에서 무소속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8명이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초선 여성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광주 서구의회도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당선자가 당을 배신했다며 의장단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원구성 불참을 선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YMCA시정지기단 윤봉란 간사는 "일단 의회 차원에서 원활히 수습하길 기대해야겠지만 의원들이 계속 제몫을 못한다면 주민소환제 등을 통한 리콜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박지경기자 jkpark@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시의회 파행 사태 민주당, 대시민 사과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둘러싼 광주시의회의 파행 사태와 관련,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회생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관계 당사자들도 수습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조사 주체에 대한 이견이 표출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

'충격' 한국 FIFA랭킹 56위

27계단 추락…토고에도 뒤져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이 무려 27계단이나 떨어진 56위로 추락했다. 한국의 FIFA 랭킹이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00년 1월 52위 이후 6년6개월 만이다.

FIFA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06 독일월드컵축구 성적을 반영해 새롭게 산정한 랭킹을 발표했다.

한국은 랭킹 포인트가 120점이나 깎이면서 지난 5월 29위에서 56위로 추락했다. FIFA는 이번 7월 랭킹이 독일월드컵 성적표를 반영하면서 경기의 중요도, 상대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IFA 세계 랭킹 순위

1	브라질
2	이탈리아
3	아르헨티나
4	프랑스
5	잉글랜드
33	호주
48	토고
49	일본
56	대한민국
81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권은 독일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한 일본과 이란이 각각 31계단과 24계단 떨어진 49위와 47위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81위까지 밀렸다. 한국은 아시아권의 우즈베키스탄(50위)보다도 순위가 처졌고 독일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한 토고(48위)에도 뒤졌다.

브라질이 독일월드컵 4강 좌절에도 불구하고 1천630포인트로 여전히 1위를 지켰고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는 11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南 "회담 복귀를" 北 "쌀 제공을"

李통일, 北미사일 강한 유감 전달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현재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측의 6자 회담 복귀 결단"이라며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북측은 이에 대해 상대방 지역의 성지와 참관지 제한 철폐, 내년부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쌀 차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8·15 때 우리측 당국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북측의 이날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각 이같은 내용으로 기조발언을 했다고 우리측 회담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전했다.

우리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6자 회담에 지체없이 복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며 북측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투자유치 홍보 세계 1위

IR자료 LACP 플래티넘상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의 IR(Investor Relation·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자료가 전 세계 16개국 1천9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 2005 Vision Awards'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을 수상한다.

금호는 GE·보잉·시티그룹·코카콜라 등이 참가한 LACP에서 내용구성, 재무자료, 정보 접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호의 뒤를 이어 2위는 미국의 GE, 3위는 캐나다의 파워파이낸셜, 4위는 한국의 CJ그룹이 차지했다.

금호의 IR자료는 이번 수상식에서 국내 20여개 참여기업 가운데 홀딩컴퍼니 부문과 에이전시 부문, IR자료의 종합평가 순위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밖에 KTF 9위, 기아자동차 19위, 한국전력공사 25위, 오리온그룹 32위, GS건설 35위, 대한항공 53위, 현대중공업 62위, 제일모직 72위, KT 82위, 대우자동차 96위, 국민은행 100위로 뒤를 이었다. /이종태기자 jtlee@

本社辭令

▲金東信 문화사업국장 직무대리 (부국장) 〈7월 13일자〉